

영어의 문장부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억양특성 분석*
 -Message-oriented 부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onation of Korean Speakers in English Sentence Adverbials
 - Focused on Message-Oriented Adverbials -

오 세 풍** · 장 영 수** · 이 용 재**
 Sei-Poong Oh, Young-Soo Jang, Yong-Jae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onation of Korean speakers in English sentence adverbials. The intonation of English sentence adverbials is realized by its syntactic and semantic meaning. Many Korean speakers realize falling or stylized high-rising intonation instead of fall-rising in attitudinal adverbials. In addition, Korean students don't realize deaccenting in likelihood adverbia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ntonation patterns in current English textbooks are not sufficient for English intonation education at school.

Keywords: intonation, falling, fall-rising, stylized high-rising, deaccenting

1. 서 론

본 논문의 목적은 영어의 문장부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억양특성을 영어 모국어 화자와 비교 분석하여 영어문장부사를 구현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한국인 화자의 억양특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D. J. Allerton & A. Cruttenden(1973)은 영어 문장부사를 그 통사적 의미적 구분에 따라 'interpretation, presentation, contingency, conjunctive'의 네 개의 하위범주로 나누고 있다.

* 본 논문은 교육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Brain Korea 21-핵심 분야'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표 1. 영어 문장부사의 분류

	Interpretation	(1) Message-Oriented	Likelihood
			Attitudinal
Sentence Adverbials		(2) Subject-Oriented	
		Presentation	(3) Viewpoint-oriented
	(4) Speaker/Listener-Oriented		
	(5) Style-Oriented		
	(6) Validity-Oriented		
	(7) Contingency	Non-linking	Conjuncts
		Linking	
	(8) Conjunctual		

또한 이들 문장부사에 나타나는 억양을 문장부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적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4 가지 형태의 억양패턴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어 문장부사의 억양분류

- a) fall-separate group
- b) fall-rise-separate group(H*LH%)
- c) fall+tail(H* L-L%-deaccenting)
- d) fall+rise

이들의 분류방법에 나타난 억양패턴의 큰 특징은 문장부사의 다양한 의미구조에도 불구하고 문장부사와 이후에 이어질 문장과의 관계정도와 정보의 공유성 여부에 따라 하강-상승조(fall-rise-separate group, fall+rise)와 하강조(fall-separate group, fall+tail)라는 두 개의 커다란 억양패턴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 영어 문장부사의 억양 재분류

- a) 하강-상승조(fall-rise-separate group; fall+rise)
- b) 하강조(fall-separate group; fall+tail)

이들 하강-상승조와 하강조가 의미와 연관되어 실현됨에 있어서 하강-상승조의 억양은 정중함, 불확실성, 의존, 주저함 등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하강조의 억양은 화자의 의지나 의도를 강화시키는데 사용되며, 이밖에도 명확성, 단정, 완료, 독립성 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장부사의 사용은 문장부사에 실현된 억양만으로도 문장부사 이후의 문장에서 구현될 내용에 대한 의미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자로 하여금 문장부사 이후에 전달될 내용에 대해 관심의 정도를 조절하게 할 수 있는 의미전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하강-상승조의 억양으로 실현된 문장부사의 경우 이후에 전달될 내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화자는 청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좀더 완곡한 형태의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자는 문장부사 이후에 전달될 내용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하강조의 억양은 문장부사 이후에 전달될 내용이 이미 앞에서 언급된 내용, 즉 이미 전달된 정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담고 있다는 것을 청자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강조의 억양은 화자가 청자의 의심이나 반대를 예측할지라도 이를 화자의 의지를 담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억양의 구현은 담화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한국인 화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알맞은 적절한 억양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담화상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어의 문장부사에서 구현되는 한국인 화자들의 억양특성을 원어민 화자들의 억양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인 화자들이 원어민 화자들과 다른 억양을 구현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인 화자들의 영어의 억양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억양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험

본 실험에서는 영어의 문장부사 가운데, D.J. Allerton & A. Cruttenden(1973)의 분류에 따라 메시지 지향적(message-oriented) 부사들 중에서 'attitudinal'에 해당하는 부사(fortunately, surprisingly, significantly, curiously, ironically)들 가운데 'Fortunately, Surprisingly, Ironically'를 사용한 문장과 'likelihood(certainly, clearly, of course, definitely, obviously, possibly, presumably, probably)'에 해당하는 부사들 가운데 'Certainly, Clearly, Of course'를 문장의 맨 앞자리에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Pierrehumbert(1980)식 표기법을 따라 분석하였다. 영어 모국어 화자와 한국인 화자의 문장부사에 따른 의미실현 양상을 비교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2.1 피험자

영어 모국어 화자는 남자 1, 여자 2 명을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서울 소재 K 대학교 국제어학원에 재직중인 외국인 강사들로서 표준영어를 구사하는 미국인들이다. 반면, 한국인 화자들은 모두 서울 K 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 3 명(남 2, 여자 1)으로서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없다.

2.2 실험자료

실험자료는 문장의 맨 앞에 문장부사를 위치키는 세 개의 문장에 각각의 문장부사 6 개를 넣어 발화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어민 화자(3)*문장(3)*부사(6) = 54 문장, 한국인 화자(3)*문장

(3)*부사(6) = 54 문장으로 총 108개의 문장이 사용되었다. 이 문장들을 각각 3 번씩 반복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문장은 총 324 개의 문장이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된 문장의 예이다.

- 1) [문장부사] Jane did it.
- 2) [문장부사] he can win the game.
- 3) [문장부사] Mary can get the prize.

2.3 실험절차

녹음은 DAT 녹음기를 사용하여 22,000 Hz의 표본율(sampling rate)로 녹음하였고, 소음이 적은 장소를 선택해 녹음하였다. 영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 각각의 문장을 무작위로 반복하게 하였다. 한국인 화자들의 경우 영어 모국어 화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였다. 분석은 UCLA에서 만든 분석프로그램인 Pitchworks ver. 5.3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논의

영어 모국어 화자와는 달리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인 화자들이 발화한 억양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인 화자들의 경우 부사의 문맥의미에 따라 상승-하강조의 억양으로 구현되어야 할 부분에서도 하강조의 억양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는 반대로 하강조의 억양으로 구현되어야 할 부분에서는 하강-상승조의 억양패턴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한국인 화자들의 경우에는 문장부사가 가지고 있는 어휘적 의미의 전달과는 일치하지 않는 억양을 사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한국인 화자들은 상승조의 억양을 구현함에 있어서도 원어민 화자들의 상승조 억양과는 다른 형태의 억양을 실현했다. 셋째, 한국인 화자들의 경우 원어민 화자들이 문장의 앞부분에 주강세 부여할 때 이후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구현하는 'deaccenting'를 잘 구현하지 못했다.

3.1 Attitudinal에 나타난 억양특성비교

Attitudinal에 나타나 한국인과 원어민 화자의 억양을 비교해보기 위해 다음 그림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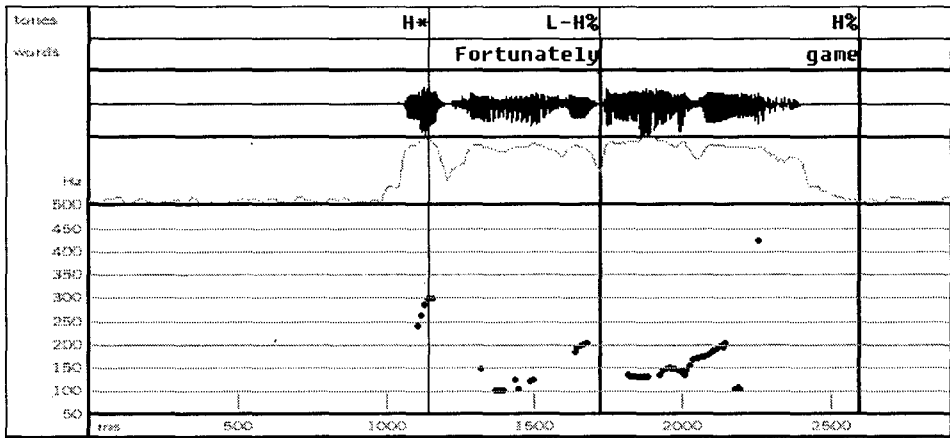


그림 1. Attitudinal에 나타난 원어민 화자의 억양

그림 1.에 나타난 원어민 화자는 부사어 'Fortunately'에 주강세를 부여한 후 하강조와 상승조의 억양으로 부사어의 억양을 실현하고 있다. 원어민 화자는 이와 같은 억양구현을 통해서 부사어 이후의 문장에 전달될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청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청자로 하여금 이후에 전달될 문장의 내용에 좀더 주의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인 화자들의 경우 동일한 부사어를 사용한 문장에서 원어민 화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하강조의 억양을 발견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들의 경우 하강조의 억양은 단정적인 의미이거나 이후 문장과의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장에서 볼 수 있는 억양의 형태이다. 그러나 한국인 화자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하강조의 억양을 실현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다음의 표를 보자.

표 2. Attitudinal에 나타난 억양특징: ()에 속에 표시된 것은 H-L%의 빈도수

	한국인		원어민	
	상승조	하강조	상승조	하강조
주로 사용된 억양	H* H-L%	H* L- H*	H* L-H%	없음
Fortunately	12(11)	15	27	0
Surprisingly	24(22)	3	27	0
Ironically	15(14)	12	27	0
계	51(47)	30	81	0
총 계	81		81	

표 3. Attitudinal에 나타난 한국인과 원어민의 상승조 억양비율

	상승조
한국인	63
원어민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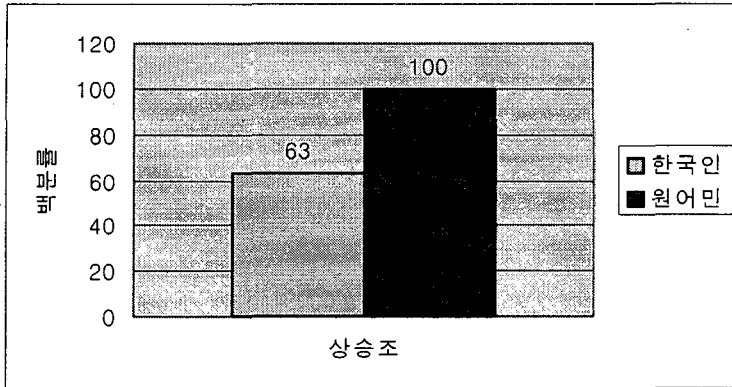


그림 2. Attitudinal 에 나타난 억양패턴 비교(단위: %)

표 2에 나타난 특징은 한국어 화자들의 경우 원어민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강조의 억양이 발견되고 있으며, 동일한 억양 패턴이 기대되는 Attitudinal 부사어에서도 개별 어휘에 따른 하강 또는 상승조의 억양편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Surprisingly와 같은 부사어의 경우 대부분의 억양이 상승조의 억양으로 구현되고 있는 점에서는 원어민 화자의 억양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제 상승조의 억양으로 구현된 것 가운데 H-L%와 같은 정형화된 형태의 억양으로 구현된 비율을 감안한다면 원어민 화자의 억양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ortunately나 Ironically의 경우 상승조로 실현된 비율에 있어서는 Surprisingly에 떨어지거나 H-L%로 구현된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원어민 화자들의 억양에 근접한 억양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 화자들이 부사어에 내재된 의미에 따른 억양패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은 Attitudinal에서 하강조의 억양으로 구현된 한국인 화자의 억양패턴 중 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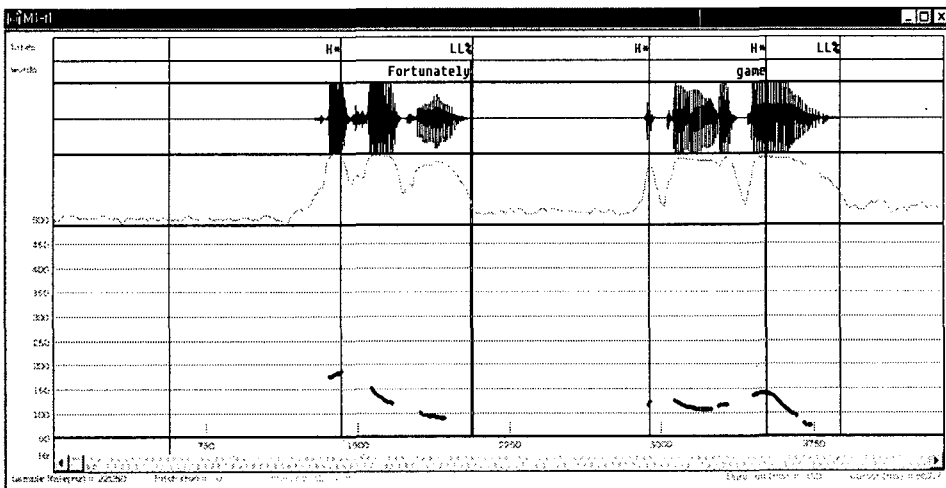


그림 3. Attitudinal에 나타난 한국인의 억양의 예

그림 3에서 보면 한국인 화자의 경우 원어민 화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하강조의 억양이 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강조의 억양이 갖는 의미적 특징이 단정적인 의미와 문장의 종료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 하강조의 억양으로 실현된 이 그림은 한국인 화자의 경우 상승조로 실현되어야 할 억양이 하강조의 의미로 실현된 것은 한국인 화자의 경우 어휘가 갖고 있는 의미에 따른 내재적 억양을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에 나타난 한국인 화자의 억양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 상승조로 나타난 억양 가운데 대부분의 억양이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H* H-L%의 정형화된 억양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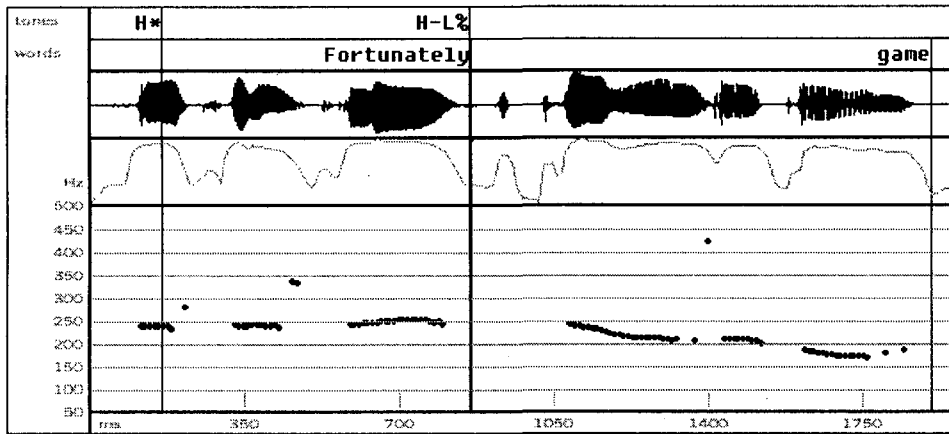


그림 4. 정형화(stylized high-rise: H* H-L%)된 형태로 구현된 한국인 화자의 억양

그림 4에 나타난 한국인 화자의 억양을 살펴보면 원어민 화자가 주강세 이후 하강-상승조의 억양패턴을 통해 이후 문장에 나타날 정보에 대한 주의환기효과를 거두고 있음에 비해 한국인 화자들의 경우 원어민 화자들과는 달리 주강세가 부여된 후 그 억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원어민 화자들이 정형화된 억양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자료를 뒷받침하는데 사용하는 억양의 형태(Pierrehumbert & Hirschberg, 1990)인데 반해 한국인 화자는 이와는 전혀 다른 문맥에서 그와 같은 억양을 사용하고 있다. 표 3에 나타난 한국인의 상승조의 억양 가운데 정형화된 형태로 구현된 억양의 비율이 91%에 이른다. 이에 반해 원어민 화자들의 경우 상승조로 구현된 억양 가운데 정형화된 억양은 찾아 볼 수 없다.

표 4. Attitudinal의 상승조에 나타난 정형화된 억양비율

	stylised
한국인	91
원어민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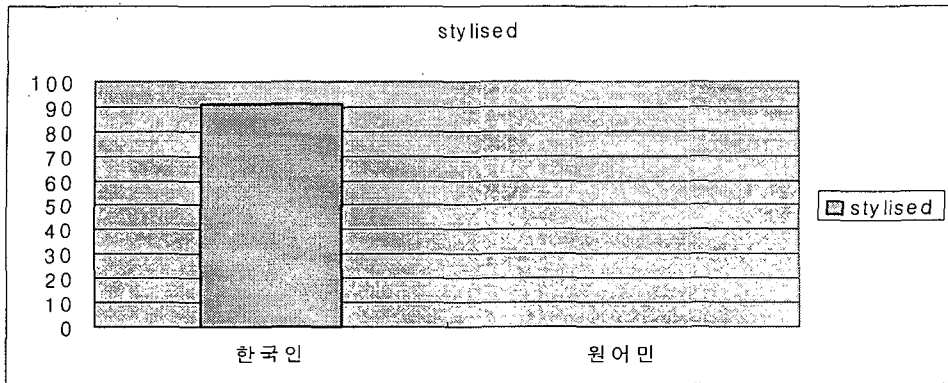


그림 5. Attitudinal의 상승조에 나타난 한국인의 억양특성

3.2 Likelihood 에 나타난 한국인의 억양특성

영어 문장부사 가운데 likelihood로 분류된 부사어들에 D.J. Allerton & A. Cruttenden (1973)은 'fall-tail'의 억양패턴을 부여하고 있다. 억양이 'fall-tail'의 형태로 구현된다는 것은 부사어 이후에 전달될 문자의 내용이 이미 알려진 구정보이며 따라서 부사어에 부여된 어휘적 정보와 이에 동반되는 억양의 형태를 통해 문장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그림에 나타난 원어민 화자의 억양곡선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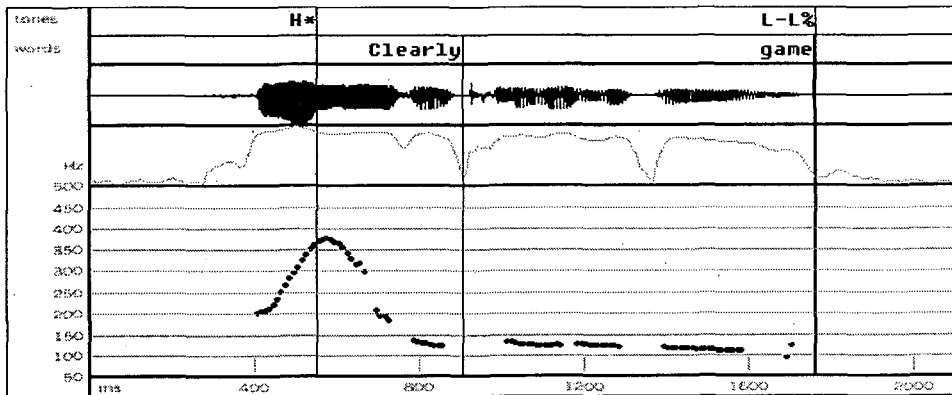


그림 6. Likelihood에 나타난 원어민 억양

그림 6에 나타난 것은 Likelihood에 나타난 원어민 화자의 억양곡선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원어민 화자의 경우 부사어 'Clearly'에 주강세가 부여된 후 이후에 연속되는 문장에서는 철저히 억양곡선이 저성조의 평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이와 같은 억양실현은 원어민 화자들의 억양구현에 대한 이전의 가설들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어민 화자들의 경우 Likelihood 부사어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들, 즉 주강세 부여후 억양구해지(deaccenting)는 원어민 화자들의 경우 부사어에 나타나는 억양을 통해 이미 이전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사어 이후에 나타나는 억양구해지 현상을 통해 정보전달의 의미로서 부사어 이후에 전달되는 문장의 정보의 중요성이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사어만으로도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인 화자들은 원어민 화자들과는 다른 패턴의 억양곡선을 볼 수 있다. 다음 한국인 화자의 억양곡선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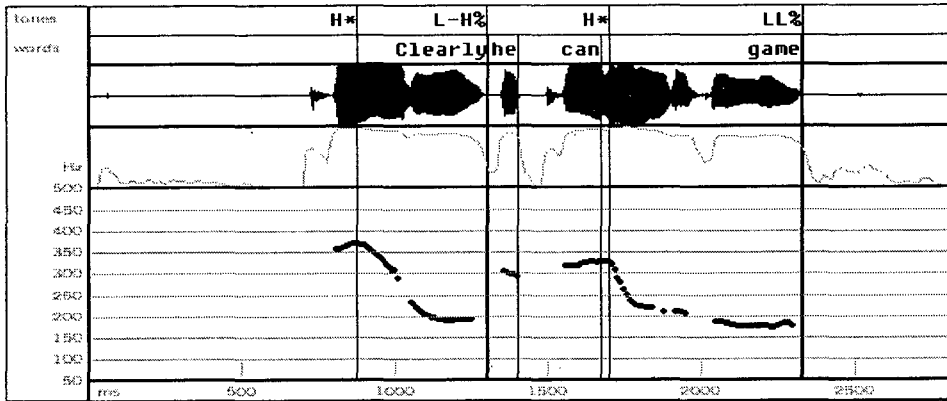


그림 7. Likelihood에 나타난 한국인 화자의 억양곡선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 화자의 억양특징은 원어민 화자들의 경우 'Likelihood' 부사를 구현함에 있어서 주강세 이후에 억양구해지 현상을 주로 보여주고 있음에 비해 한국인 화자는 부사어 'Clearly' 이후에도 억양구해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원어민 화자들이 부사어에 나타난 의미적 정보만으로도 문장 전체의 의미전달에 충분해 이후의 문장에서는 억양구해지를 통해 억양을 실현하고 있으나 한국인 화자들은 부사어 이후의 단어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 화자들이 원어민들과 달리 부사어에 내어어휘와 관련되어 내재된 억양패턴을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표 3을 살펴보자.

표 5. Likelihood에 나타난 억양특징: ()에 속에 표시된 것은 H-L%의 빈도수

	한국인		원어민	
	상승조	하강조	상승조	하강조
주로 사용된 억양	H* H-L%	H* L- H*	L+H* L-H%	H* L-L%
Certainly	5(4)	22	6	21
clearly	8(5)	19	9	18
Of course	0	27	0	27
계	13(9)	68	15	66
총계	81		81	

먼저 원어민 화자들과 한국인 화자들의 하강조 억양을 살펴보자. 원어민 화자들과 한국인

화자들의 억양곡선을 살펴보면 하강조의 억양으로 실현되는 비율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이들의 억양실현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어민 화자들의 경우 하강조의 억양의 경우 부사어에 주강세를 부여한 후 이후의 문장에 억양구해지 현상을 보여주는 H* L-L%의 억양이 주로 구현되고 있으나 한국인 화자들의 경우 전체적인 억양이 하강조의 억양이긴 하지만 억양구해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부사어 이후의 문장에서도 강세가 주어지고 있는 H* L-H*와 같은 억양패턴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화자의 하강조 억양 가운데 억양구해지 현상이 일어난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인 화자들의 경우 하강조 억양으로 구현된 억양패턴에서 원어민 화자들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표는 Likelihood의 하강조의 억양에 나타난 원어민과 한국인 화자의 deaccenting 실현비율의 차이이다.

표 6. Likelihood에 나타난 원어민과 한국인화자의 deaccenting 실현비율

	deaccenting
한국인	31
원어민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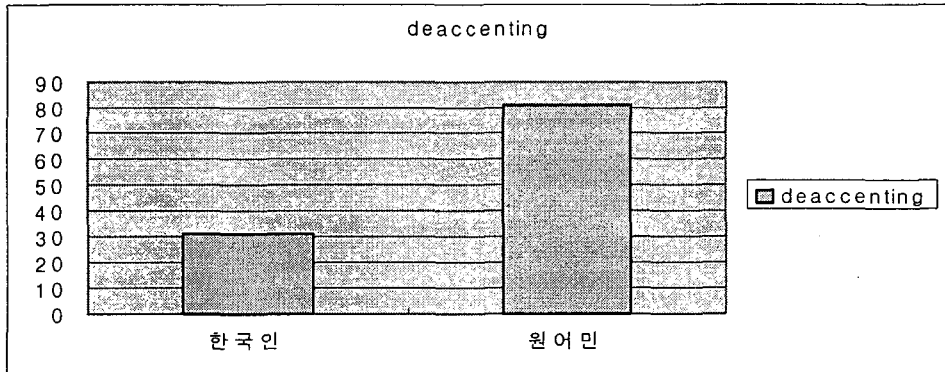


그림 8. Likelihood에 나타난 원어민과 한국인 화자의 deaccenting 실현비율

3.3 영어 교과서 속에 나타난 억양패턴

3.3.1 조사대상 교과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중학교 3학년 3개 출판사(지학사, 시사영어사, (주)두산: 1, 2학년은 동일 저자인 탓에 조사 생략)를 조사하였고, 고등학교 영어 I 교재는 지학사, 시사영어사, (주)두산의 3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3.2 조사결과

조사 결과 각각의 출판사에 표시되어 있는 강세의 숫자와 억양패턴은 다음과 같다.

표 7.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억양패턴 분석

출판사	억양패턴						총계
	2-3-1	2-3-2-3-1	3-2, 3-1	3-1	2-3, 3-1		
지학사	4	7	2				
시사영어사	3			2	1		
두산	강세, 음절, 연음과 관련된 패턴 연습 및 듣기 테이프 대체						
계	17%(7)	17%(7)	5%(2)	5%(2)	2%(1)		46%(19)
	2-3-1	2-3-2-3-1	3-2, 3-1	3-1	2-3, 3-1	2-3	
지학사	2	1				4	
시사영어사	1	1				1	
두산	1	9				2	
계	10%(4)	27%(11)				17%(7)	54%(22)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행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억양패턴의 모습은 지극히 단편적인 하강조의 억양인 2-3-1 또는 문장 가운데 있는 각각의 내용에 강세를 부여하는 하강조의 형태인 2-3-2-3-1 형태의 억양이 대부분인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양의 습득을 막고 영어 억양이 단순한 평면구조의 억양형태를 갖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가능성도 있으며, 문장의 종류도 단순한 형태의 서술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위에 조사된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학생이 1 년에 한 가지 교과서만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학생 개인당 한 학년 동안 접할 수 있는 억양패턴모형의 빈도수가 10 개를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이 가운데에도 단순한 하강조의 억양인 2-3-1, 2-3-2-3-1의 억양형태가 전체 억양 가운데 70 개를 차지하고, 그밖에 의문문의 경우에도 단순한 상승조의 억양인 2-3의 형태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억양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정확한 억양의 구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더군다나, 교과서 상에 제시된 억양은 지극히 평면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한국어 억양에 젖어 있는 한국인 화자들의 경우 더욱더 다양한 패턴의 억양을 구사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교과서 상에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부사어와 같은 개별어휘가 의미적 내용에 따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억양의 형태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고, 교과서 상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2-3-2-3-1과 같은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내용에 강세를 부여하는 억양패턴은 각각의 강세에 대한 중요성을 표시하고 있지 않아 강세가 여러 개 주어졌을 경우 가장 마지막 강세를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영어의 기본적인 억양형태의 이해마저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단일 문장 내에 강세가 여러 개 등장하는 교과서상의 표기방식은 원어인 화자와는 달리 한국인의 영어문장 발화시 볼 수 있는 주어를 포함한 각각의 내용에 강세를 부여하는 현상과 일치하고 있다. 게다가 영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 주장세가 부여된 후 이후에 전달될 내용이 앞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일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어질 내용은 강세를 부여하지 않는 억양구해지 현상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인 화자들이 부사어에 주장세를 부여하고도 이후의 개별적인

내용에 강세를 부여하는 현상과도 일치한다. 물론 특정 출판사의 경우 미리 녹음된 어학 테이프를 통한 새로운 억양교육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체 수업 중에서 교사가 담당하는 문법 및 강독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할 때 이 방법 역시 억양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현재의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상에 표현되어 있는 억양패턴으로는 중·고등학생들의 억양교육에 불충분할뿐더러, 오히려 학생들의 다양한 억양구현을 막거나 잘못 인식하게 하고, 동시에 잘못된 억양을 사용하게 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억양교육에서는 영어 모국어 화자와 같은 억양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억양 패턴의 수를 현행 교과서보다 확대하고, 문장부사와 같이 특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어휘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억양패턴을 교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개별적인 강세와 억양을 구분해 구현할 수 있는 억양교육을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김기호. 1999a. "억양 음운론의 소개: 영어 억양을 중심으로." 음성과학 6: 119-143.
 _____. 1999b. "영어 억양음운론에 의한 억양의미 분석." 한국음성과학회 여름학회 특강논문.
 Allerton, D.J. and Cruttenden, A. 1973. "English sentence adverbials: their syntax and their intonation in British English," *Lingua* 34, 1-30.
 Bolinger, D. 1989. *Intonation and its uses. -Melody in Grammar and Discourse*. Stanford University Press.
 Cruttenden, A. 1986. *Into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dd, D. R. 1980. *The Structure of Intonational Meaning*. Indiana University Press.
 Pierrehumbert, Janet B.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 thesis, MIT.
 Pierrehumbert, Janet. and Julia Hirschberg.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in P. R. Cohen, J. Morgan, and M. E. Pollack(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Cambridge, MA: MIT Press: 271-311.

접수일자: 2001. 4. 30.

게재결정: 2001. 5. 30.

▲ 오세풍

서울시 관악구 신림3동 706-6(우편번호: 151-881)

Tel: +82-2-864-7833 (H)

E-mail: oseyu@hanmail.net

▲ 장영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우편번호: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E-mail: jangyoungsoo@hotmail.com

▲ 이용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우편번호: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3 (O)
E-mail: yjlee@korea.ac.kr

Appendix

Experimental Stimuli

I)

- Did Jane finish the work by D-day?
 → Fortunately Jane did.
 Can he possibly win the game?
 → Fortunately he can win the game.
 Can Mary possibly win the prize?
 → Fortunately Mary can win the prize.

II)

- Did Jane steal the book?
 → Of course Jane did.
 Can he possibly win the game?
 → Of course he can win the game.
 Can Mary possibly win the prize?
 → Of course Mary can win the prize.

III)

- Jane didn't like the work, did she?
 → Ironically Jane did.
 He didn't like the game, did he?
 → Ironically he won the game.
 Can Mary win the prize?
 → Ironically Mary can win the game.

IV)

- Did Jane break the window?
 → Clearly Jane did.
 Can he possibly win the game?
 → Clearly he can win the game.
 Can Mary possibly get the prize?
 → Clearly Mary can win the prize.

V)

- Jane didn't like the work, did she?
 → Surprisingly Jane did.
 Tom is a rookie, isn't he?
 → Surprisingly he can win the game.
 This is the first time that Mary is attending the festival?
 → Surprisingly Jane can win the prize.

VI)

- Did Jane make the sculpture?
 → Certainly Jane did.
 Can he possibly win the game?
 → Certainly he can win the game.
 Can Mary possibly win the prize?
 → Certainly Mary can win the prize.